

의상에 있어서 신체부재의 유형 연구

- 해체적 사고에 근거하여 -

A Study of the Type of Absent Body in Clothing

- Based on Deconstructionism-

박 현 신(Park Hyunshin)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 본 연구는 2001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2. 해체주의와 신체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 해체주의
- 2-2 존재로서의 신체, 부재로서의 신체
- 2-3 의상에서의 신체

3. 의상에 있어서 신체 부재의 유형 분석

- 3-1 성 정체성의 부재
- 3-2 조화된 전체성의 부재
- 3-3 형태의 부재
- 3-4 의상으로서 기능적 의미의 부재

4. 결론

(要約)

전통적으로 의상과 신체의 관계는 고정적인 것이었으나, 해체적 사고는 의상에서 신체의 존재와 부재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의상의 중심 개념인 신체의 해체를 통해 가시적인 신체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선 더 큰 의미의 신체인 메타 바디를 제시하였다. 이는 의상의 합리성은 물론 표현 방법이나 형태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방법의 신체 부재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은

- 1. 성 정체성의 부재
- 2. 조화된 전체성의 부재
- 3. 형태의 부재
- 4. 의상으로서의 의미 부재로 표현되었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body has been fixed, deconstructism evoked doubt about not only presence or absence of body but also identity for wear. In the result, meta-body which is beyond the existent body was proposed through deconstruction of body which is main concept for clothing.

The deconstructive body have an effect on the way of expressions and forms for clothing as well as the rational clothing, and propose various types of body absence in clothing.

The results are:

- 1. the absence of gender identity
- 2. the absence of wholeness in harmony
- 3. the absence of clothing form
- 4. the absence of meaning as clothing

(Keyword)

deconstructive body, body absence in clothing.

1. 서론

20세기에는 수많은 이념과 이즘(ism)들이 혼재했다. 특히 확고한 형이상학적 신념과 과학적인 가설들이 깨지면서 그것에 의존하여 설명되어졌던 모든 현상들이 사실이 아니며 환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은 전통과 관습, 절대가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현상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철학과 예술, 문화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체주의는 합리성과 담론의 권력 배제의 원칙,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통해 존재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성 중심의 모더니즘 시기의 사고 하에서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신체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신체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해체주의적 사고 하에서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신체관의 고정적인 틀을 부수는 것이다. 즉, 종래의 신체에 대해서는 거부의 자세를, 새로운 신체에 대해서는 긍정, 혹은 부정하면서 가시적인 신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선 더 큰 의미의 신체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의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의 의상은 크게 모더니즘의상과 포스트모던, 혹은 해체주의 의상으로 크게 나누어 형태, 구조, 기능, 의미, 신체 등이 존재하는 의상과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이며, 비기능적인 의미와 신체가 부재하는 의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의상과 신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체적 사고는 의상의 합리성은 물론 신체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부재를 해체의 중심 개념으로 볼 때 의상에서의 주체인 신체의 부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재된 신체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더 큰 의미의 신체인 메타바디(meta-body)는 의상의 형태와 의미에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의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의상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해체주의와 신체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의상에 나타난 신체 부재의 유형과 표현 방법을 디자이너의 작품과 의상을 표현 매개체로 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2. 해체주의와 신체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해체주의

뉴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아방가르드와 포스트 구조주의 등의 이론적 갈등 속에서 등장한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는 사물을 분리하고, 절단하고, 부수고, 조각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부분들과 조각들을 설득력 있는 원칙 하에 재구성하는 예술과 건축에 관한 개념이었던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해체주의적 성향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¹⁾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처음 논의된 해체주의는 겉으로 드러난 외양보다는 근처에 숨어있는 어떤 개체나 법칙을 찾아 전체적인 “구조”(structure)만을 중요시함으로써 개체를 전체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독선에 빠지기 쉬운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인 근원(origin), 중심(center), 현존(presence)등과 로고스중심주의(logos-centrism)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전통이나 말 중심주의의 밖에서의 파괴(destruct)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construct)해놓은 것들을 그 근본부터 해체(deconstruct)하는 것이 된다.²⁾ 즉, 해체는 단순히 형태나 기능 등의 외적인 해체가 아니라 내적 사고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해체주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적인 사고의 목적은 언어, 해석, 철학 등과 같은 것에 대한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은 본질적인 면에 대한 거부를 가능케 할 것이며 그래서 그 거부의 결과 다른 표현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부는 과거-형이상학의 역사-를 잊어버린 아방가르드적인 제스처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형이상학의 역사가 철학 그 자체의 표상(presentation)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조화 할 수 없도록 만들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³⁾ 즉 해체는 중심(현전의 중심, 로고스 중심, 음성 중심)을 부정하지만 중심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의식이라는 중심 형성 개념을 풀기 위해 무의식이라는 대립항을 주장하여 체계의 어느 쪽도 존재의 중심, 즉 현전(現前)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⁴⁾ 현전의 형이상학은 존재의 의미를 현전으로 이해, 즉 “존재한다”는 것 본질적으로 “현전한다” 더욱이 “정신에 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전에 대한 이해는 존재의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차연(differance)은 비결정성에 근거하여 쓰여진 말의 본질이다. 차연은 공간적 구별이나 다른 것과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동사 “다르다”와 시간 또는 연기라는 의미에서 동사 “지연시키다”의 복합어이다. 차연은 기호가 그것의 체계 내에서 간격을 두고 구분되어지는 차이의 체

1) Peter Noever, 김경준 옮김,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1” 서울: 청람, 1996, p.11.

2) 김성곤 편저,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1988, p22.

3)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1992, p.56.

4) 서양 철학사 연구회 편, 반철학으로서의 철학, 지성의 샘, 서울, 1995, p.

계에서 나온다는 공간적인 개념인 동시에 의미하는 것 이란 언제나 끝없는 존재의 지연을 강요한다는 시간적 개념이다. 차연은 현존(presence)인 동시에 부재(absence)라는 기묘한 성격을 갖는 활동이다. 현재 작용하는 것인 동시에 숨어버린다고 하는 이상한 작용이다.⁵⁾ 현전에 의해 가려져 있던 타자성(otherness)을 전면 에 부각시키는 비존재로서의 존재로 일반적으로 부재를 추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 존재로서의 신체, 부재로서의 신체

신체에 대한 철학적 인식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철학 은 물론 예술의 주제로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플라톤은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 파악하고 육체를 변화하고 소멸되는 물질성의 세계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선과 악의 이원론적 개념으로 확산시켰다. 데카르트는 육체와 영혼을 이질적이고 분리된 두 개의 실체, 즉 육체는 물질적, 육체적인 것으로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만이 본성에 속하여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사유하고 판단하는 정신의 행위이므로 “생각하는 인간”을 주장하였다.

20세기의 신체에 대한 논의는 육체의 이원론을 비판하고 정신과 육체의 두 실체는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이데거, 가브리엘 마르셀,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등은 정신과 육체의 경계선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존적 의미와 감각적 체험을 중요한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사르트르는 신체는 곧 의식으로 의식의 신체성, 신체의 의식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신체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신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등의 “대타 관계”에서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였다. 또한 메를로-퐁티는 신체와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신체는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궁극적인 주체가 되며, 세계에 거주하며, 세계를 향해 운동해 가는 세계에의 존재(etre-au-monde)로 타자의 신체는 나의 신체와 “상호 신체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나의 신체에서 성립되는 세계는 나만의 고립된 세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가 된다. 즉, 신체가 세계에의 신체로 이미 세계 속에 있고 따라서 이미 상호 신체적인 것으로 타자의 신체와 더불어 있음을 말했다. 들뢰즈는 육체를 “육망하는 기계”의 문제로, 미셸 푸코는 권력의 역사는 결국 개인의 육체를 어떻게 지배하고 공략적으로 포위해 왔는가에 대한 육체의 정치적인 면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는 데카르트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반발로 통합된 인격을 상징하는 인본주의 인간관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신체가 마음의 안티테체로서, 또는 그것의 물질적 하부구조로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결정하는 여러 담론들, 즉 성과 권력, 인종과 계급의 문제가 교차하는 힘과 투쟁의 현장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폴 발레리는 우리의 신체를 4가지로 구분하였다. 통상적으로 “나의-신체”라고 부르는 제1의 신체는 우리가 순간마다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특권적 대상으로 누구나 본질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체는 약간의 가동적인 부분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뿐인 신체와 생활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로서 자기의 내부 구조와는 아무런 연관을 갖지 않는 신체이다. 그것의 작용능력 전부는 전적으로 “외부 세계”로 향해져 있어 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체로서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제2의 신체는 여러 예술에서 받아들여진 신체로 천, 장식품, 갑옷 등이 그 위에 어울려 정돈된 것이다. 분할하여 빨 빨이 해부되어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제 3의 신체는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만 통일성을 가지며 이 신체를 인식한다는 것이란 그것을 흩어진 소부분과 단편으로 환원해 버리는 신체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신에 의한 인식으로 존재하며 인식 불가능한 대상으로 “현실의 신체”, 혹은 “상상 상의 신체”라 해도 별 차이가 없는 제 4의 신체를 제시하고 이는 어떤 “비존재”를 상징함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말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신체의 존재는 예술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예술에서 신체는 오랫동안 사실주의적 재현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매체가 곧 작품의 주제가 되므로 신체의 존재는 유리되어 그 존재의 의미는 유명무실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형상성의 회복과 정체성의 상실을 자각시켰고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신체를 등장시켰다. 1960년대에는 자신의 몸을 도구로 작업하는 Body Art를 시작으로 예술가의 신체적 표현인 퍼포먼스를 통해 신체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 총체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신체는 입체파 화가들이 보여지고 경험한 사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이미지를 오려내고 분리시키고 재배열하였던 것처럼 80년대 이후부터 부분적인 조각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부분의 조합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신체는 해부학적 임상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부분 교환과 재조합으로 변형이 가능한 기계적인 시스템에 불과하며 기능적 사물이자 기호의 집합체로서 자본의 지배로 인해 텅 비어 버린 위기의 육체(Panic Body)로 표현된다. 신체는 더 이상

5) 앞글, p.72

6) 폴 발레리 외 지음, 심우성 편, “신체의 미학”, 현대 미학사, pp.16-24

사회적으로 의미 지워진 단일한 총체이기를 거부하고 총체성을 잃고 유기적 구성을 잃어버린 뒤틀리고 불구가 된 기형의 신체로, 조각나고 해체되어 외부 환경이나 권력에 의해 순간 순간 변화하는 원형이 부재한 신체로,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조화와 통일성의 미학 대신 부조화와 불일치의 미학에 의한 미의 규칙에 저항하는 신체로 제시되고 있다.

2-3 의상에서의 신체

20세기 후반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신체관의 고정적인 틀을 부수는 것으로 종래의 신체에 대해서는 거부의 자세를, 새로운 신체에 대해서는 긍정, 혹은 부정하면서 가시적인 신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서 더 큰 신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일치성(cultural consistency)⁸⁾에 의해 의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의상에 있어서 해체는 엄밀하게 말해 의상의 구조와 더불어 철학에 의해 조직된 관념뿐만 아니라 이론, 실행 등에 의해 지배되는 의상개념의 철학적 구조를 해체한다. 전통적으로 의상에 있어서 신체와 구조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융합되어 유지해 왔다.

의상은 주체와 세계가 만나는 경계이며, 주체의 마지막 꺾임이자 바깥과의 최초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즉, 사적인 세계가 공적인 공간과 만나면서 의미의 공공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자리인 것이다.⁹⁾ 패션이나 의상은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의미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의 전달체를 만드는 신체를 분명히 하는 물질적인 대상을 의미하므로 신체를 대변할 수 있다.

모더니즘은 객관성과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지배받는 합리적인 이성을 기초로 한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다. 르네상스의 해부학이 등장한 후 전통적인 서구의 인체에 대한 시각은 수직적이고 균형 잡힌 위와 아래, 좌우가 있는 적절한 비례의 인체를 이상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된 신체에 혼란된 눈은 목선에서 들어가서 아래로 움직여가고 좌우에 균형 잡힌 요소들이 있고 디자이ner가 정한 밑단선¹⁰⁾에서 끝나는 완전한 의상을 추구했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부드러운 어깨, 부푼 가슴, 가는 허리, 퍼진 치마 등과 같은 여성적인

곡선을 최대한 살려 꽃과 같은 모습으로 여성의 신체에 봉사하는 뉴룩(New Look)을 발표하였다.(그림1) 이는 신체 구조를 의식한 정확한 재단법에 의해 재단된 구성적인 의상이며 외부 세계로 향한 신체의 존재를 위한 것으로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 차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단위가 된다. 이러한 의상은 발레리의 제 2의 신체라 할 수 있으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적인 사고의 신체가 존재하는 의상이라 할 수 있다.

해체적 사고는 현전에 가려져 있던 타자성을 부각시키고 상호 텍스트성, 탈구성, 탈중심, 차연의 논리를 통하여 반본질주의 또는 부정부주의적인 의미의 해방 또는 의미의 부재, 비존재로서의 존재의 부재를 추구한다. 이러한 사고는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서 제4의 신체를 제시하였고, 의상의 형태와 표현기법, 더 나아가 의상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된 성(Gender)에 대한 혼돈은 남녀의 구별이 불가능한 의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의된 신체적인 성의 질서를 거부하였다.(그림2) 조각난 신체의 부분들은 제 위치, 제 역할에서 벗어나 의외의 형태로 표현되거나(그림3) 부분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연결을 유도하기도 하여 새로운 신체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림4) 안정된 신체에 적합한 모더니즘의 의상과는 달리 신체의 선에 어긋나는 비대칭적인 선과 밑단선, 부분 요소들의 이동, 형태의 왜곡으로 인한 기형적인 신체의 추구하고 더불어 구조선이 제거된 평면적 의상과 신체의 만남은 신체와 의상사이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해체적 미학을 주장한다.



(그림1) Dior의 New Look

7) Art, 1999, 10

8) 의상의 흐름이 한 시대의 회화, 건축, 조각, 실내장식, 가구 등 타 예술 분야의 시각적 조형 양식 내지는 표현의 미적 주제와 일치점을 보여준다. Roach, M. & Musa, E. New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A handbook, 1980.

9) 윤난지, “얇고 불투명한 옷입기”, Art, 1999, 12월호, p.

10) onstantine, M. & Reuter, L. " Whole Cloth", The Monacelli Press, New York, 1997, p. 197



(그림2) Jean Paul Goutier
Barbes 1984-85 A/W



(그림3) Castel Bajac Backward Suit



(그림4) 박현신 어어 어떻게 입지?, 1996

3. 의상에 있어서 신체 부재의 유형 분석

고전적인 몸의 이미지는 우리와 우리 몸의 안정된 동일

성을 나타내면서 의상에서는 신체적 구조를 중요시한 구조적인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제시된 신체는 의상의 표현기법이나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구조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가시적인 신체의 부재뿐만 아니라 뒤틀리고 왜곡되어 원형이 부재한 신체를 추구하는 해체적 사고에 근거한 의상은 성의 정체성이나 조형적인 조화, 전체성, 기능성을 무시한 다양한 형태의 의상을 추구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의상에 나타난 신체의 부재의 현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성 정체성의 부재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의미 지워진 단일한 총체이기를 거부하며 외부 환경이나 권력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신하는 원형이 부재한 신체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으로 규정지어진 성의 구별에 저항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동질성 혹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성에 초점을 둔 성별이론(Gender Theory)을 거부한다. 많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위의 가능성을 경험했고 불분명한 성이나 최소한 견고한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상을 만들었고, 의상을 차이를 위한 투쟁의 표시로, 또 여전히 다른 본성과 성에 대한 동등함의 인식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¹¹⁾

남성과 여성의 구분의 기초와 사회적 질서의 거부는 transvestism이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genderless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장 폴 고티에는 의상을 통해 양성(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5)에서 장엄한 검정과 요부의 상징인 빨강의 대비는 강인한 다리와 스커트로 대변되는 남성과 여성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도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루디 건릭(Rudi Gernreich)은 성의 의상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의 신체가 제거된 의상 그 자체의 원형으로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여 남녀의 구별이 없는 토프리스(Topless) 수영복을 발표하였다. 또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성 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자신의 성을 부정하지 않은 채 상대성의 아름다움을 교차시켜 남성의 신체, 혹은 여성의 신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신체, 전체성(Wholeness)을 의미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성 정체성의 부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의상들은 성의 이분법에 의한 고정된 이미지인 고전적인 신체가 아닌 새롭게 변화하는 성의 원형이 부재한 새로운 신체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11) Looking at fashion , p. 27-



(그림5) Jean Paul Gautier
Squire: Couture Man 1996-97 A/W

부분으로 분해되어 하나의 옷에 동시에 나타나거나, 부분과 부분 사이의 비정상적인 연결은 인체와의 일대일 대응을 불가능하게(그림8) 하기도 하고 부분이나 구조만 앙상하게 남은 skeleton dress에서처럼 의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한다.(그림9)



(그림6) Jean Paul Gautier
Maid of Orleans 1994 S/S

3-2 조화된 전체성의 부재

조각나고 해체되어 부분으로 나뉘어진 신체는 더 이상 신체 이미지의 전통적인 재현을 위한 의상이 되기를 거부한 채 부분으로 분화되고 다시 재조합 되어 구별이 불가능한 의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들 의상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재정리, 구성되어 새로운 통일성을 가지며 의상을 통해 조화된 신체를 의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의상의 신체를 고려한 정상적인 관계나 형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소재의 부조화를 시도하거나, 안과 겉을 전치시켜 의상의 구성상 안쪽에 위치하던 구성선, 시접, 박음질선, 라벨 등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부터 속옷의 겉옷화 현상까지 다양하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tier)는 내밀한 속옷을 겉옷화 하여 무대라는 공공 장소에 등장시키거나 강하고 외향적인 갑옷과 연결시켜 소재의 부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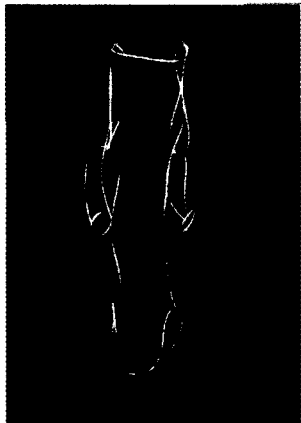
앞과 뒤, 위와 아래의 위치와 형태, 역할이 바뀌거나 소재나 칼라와 같은 해체된 신체의 각 부분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조합을 하기도 한다. 라펠선이 있는 정장의 재킷과 아웃도어 룩(outdoor look)의 사파리와 같이 각기 다른 용도의 의상이 해체되어 한 의상으로 재구성되기도 한다.(그림7) 의상의 정상적인 입음의 관계는 무시되고 여러 개의 목, 팔, 몸통, 다리 등이



(그림7) Pietra, Mezzegiacche
(front and back) 1995



(그림8) Jean Paul Gautier
Europe of the Future 1992-93A/W



(그림9) Caroline Brodhead
Seven Ages No.7:'Seam' 1986



(그림10) Rei Kawakubo 1997



(그림11) Issey Miyake,
Rhythm Pleats 1990

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관계를 부정한다. 이세이 미야케는 형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넘어서고자 "모양이 없는 모양, 형태가 없는 형태(shape without shape, form without form)"를 위해 의복 구성 법이나 재단법을 역행하여 의상을 평면의 상태로 되돌려 놓음으로서 입체적 신체 위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또 다른 형태의 의상을 창조한다. 미니멀리즘의 회화 작품과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처리되어 목선과 소매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완전한 평면형이다. 이 단순한 도형은 인체 위에서, 그러나 결코 인체와 일치되지 않는 3차원의 공간에서 입체적이며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게 된다. (그림11) 인체에 의상이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와 천이 상호 공존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의상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각한 듯한 모습으로 형태감을 주며, 움직임과 역동성에 의해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여 또 다른 조형미를 창출한다.

3-3 형태의 부재

총체성을 잃고 유기적 구성을 잃어버린 뒤틀리고 불구가 된 기형적인 신체는 미의 규칙에 저항하는 신체로 의상을 통해 신체를 왜곡하여 보여주기도 하며, 부분의 확대와 축소는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조화와 통일성의 미학 대신 부조화와 불일치의 미학으로 제시된 의상으로 나타난다.

폼므 드 갈송의 레이 가와쿠보는 인간의 형태가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에 도전하여, "신체는 의상을 만난다. 신체는 의상이 된다. 의상은 신체가 된다."라는 주제 하에 비정상적인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스트레치 직물에 숨을 채워 넣은 옷을 디자인했다.¹²⁾(그림10) 이상적인 신체 형태의 해체를 통해 더 이상 의상이 아름다운 신체

3-4 의상으로서 기능적 의미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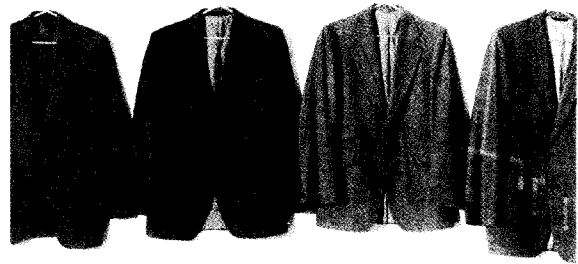
12) Constantine & Reuter. 앞글. p. 197

해체적 사고 하에서의 의상은 또 다른 “존재”를 유도하기 위해 의상의 주체인 신체의 해체와 부재를 시도함으로써 의상을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의상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의상을 인체와 유리(분리)시켜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또 다른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다.¹³⁾ 의상을 의미의 또 다른 실체로 다루는 것은 의상의 실체, 즉 의상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호(symbol)로 다루어 기존의 실체로서의 의상개념을 발전시키고 전복시켜 의상을 의상답지 못하게 하여 의미를 느끼게 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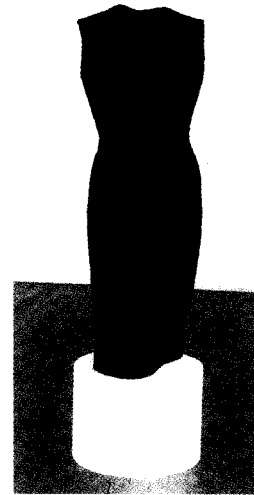
비버리 시메스(Beverly Semmes)는 두 개 혹은 네 개의 같은 형태의 의상을 옷걸이를 사용하여 벽에 걸려있게 함으로서 존재와 부재의 대립 개념을 긍정적/부정적, 능동적/수동적, 동적/정적의 개념으로(그림12), 루스 웨잉(Ruth Scheuing)은 전형적인 남성의 활동복인 재킷에서 신체를 제거하여 비어 있게 함으로서(그림13) 사회적/사적인 대립개념을 추출하여 남성/ 여성의 의미 구조를 상징하는 기호로 바꾸었다.

Gotscho는 백색의 웨딩 드레스와 검정의 의상을 함께 연결해 놓음으로서 결혼의 음영을 상징하였고, 주디스 웨아(Judith Shea)는 패션과 조각의 장르를 넘나들면서 의상을 아이콘으로, 원형으로, 혹은 문명과 시간과 존재의 잔여물로서, 경험에 대한 은유의 방법으로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하였다.(그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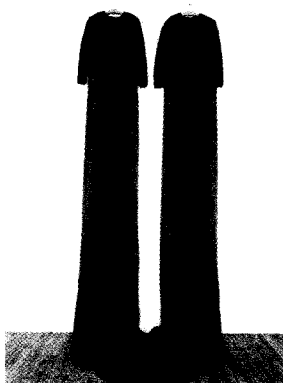
이는 의상의 입음의 기능을 부정하고 신체에 대한 은유의 방법으로 정신에 의해 인식 가능한 존재인 메타 바디(Meta-Body)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림 13) Ruth Scheuing
13명의 남자 혹은 페네로페 II(부분) 1989.



(그림 14) Judith Shea
Black Dress, 1983



(그림12) Beverly Semmes
Watercoat 1991

4. 결론

신체는 마음의 안티테제로서 또는 그것의 물질적 하부 구조로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결정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는 오랫동안 사실주의적 재현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신체에 대한 해체를 가하여 가시적인 신체만이 아니라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선 더 큰 의미의 메타 신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의상에 나타난 신체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의미 지워진 단일한 총체이기를 거부하며 외부환경이나 권력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신하는 원형이 부재한 신체는 규정지어진 성 정체성이 부재한 의상으로 나타났다.

13) 윤난지, 앞글, p.

둘째, 전통적인 신체 이미지의 재현을 거부한 조각나고 해체되어 부분으로 나뉘어진 신체는 앞과 뒤, 위와 아래, 안과 밖이 존재하던 전형적인 의상을 거부한 형태로 표현되어 의상이 더 이상 신체를 위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님을 주장했다.

셋째, 미의 규칙에 저항하는 뒤틀리고 불구가 된 기형적인 신체는 부분의 확대와 축소, 입체 구조의 평면화의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조화와 통일성의 미학 대신 부조화와 불일치의 미학으로 제시된 의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존재로서의 존재인 신체는 또 다른 존재를 유도하기 위해 의상으로부터 추상화되어 신체의 부재를 시도함으로써 의상을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의상을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체계로 다루어 기존의 실체로서의 의상 개념을 발전시키고 전복시켜 의상을 의상답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 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37호, 한국복식학회, 1998.

김 성곤 편저,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1988.

김 혜영,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후세인 칼라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제50권 4호, 2000.

박 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이 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1992.

조 말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구성 현상 연구" 디자인학 연구, Vol13, No2, 한국 디자인 학회, 2000

폴 발레리 외, 심 우성 편, "신체의 미학" 서울 : 현대 미학사, 1997.

Constantine, M. & Reuter, L. "Whole Cloth", The Monaceli Press, New York, 1997.

Chole Colcheter, The New Textile -trends and tradition- Rizzoli, New York1991.

Farid Chenoune, "Jean Paul Gaultier" Thomas and Hudson, London, 1996.

Felshin, Nina. "The Empty Dress- Clothing as Surrogate in Recent Art-" Independent Curators

Incorporated, New York, 1993.

Lavrence Benaim, "Issey Miyake" Thomas and Hudson, London, 1997.

Skira editore, Biennale di Firenze "Looking at fashion" La Fondiaria Pitti Immagine Trgetti Cooperrativa Tassisti Fiorentini SO. CO. TA. Firenze. 1996

Perter Nover, 김 경준 옮김,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서울 : 청람, 1996.

"Art", 1999년 10월, 12월.